

2016-17 지역대표 모임

-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다녀와서

글. 10지역대표 **김 중**(서울문화RC)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에 2016-17 지역대표들의 마지막 모임이 있었다. 회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모임으로 좀더 의미있고 추억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가지기로 하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방문하였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는 지상123층 지하6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중 전망대가 있는 117층부터 123층까지를 서울스카일로 부르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의 총 높이는 40.3m의 첨탑구조물을 포함하여 555m로 개장일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세계의 초고층 건물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828m), 중국의 상하이 타워(632m),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즈 알 바이트 타워(601m), 중국의 평안국제금융센터(600m)에 이어 5번째이다. 한국적 곡선의미를 지닌 한국 전통의 도자기와 붓의 형상을 모티브로 설계되었으며 최대풍속 80m/s와 진도 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약속이 중복된 몇 분의 지역대표와 박호균 총재님을 제외하고 1지역 박윤희대표, 2지역 이병한대표, 4지역 장태평대표, 6지역 강봉섭대표, 8지역 우상민대표, 9지역 박종국대표, 10지역 저와 법률고문 김정균님의 우리 일행은 오후 5시에 잠실역 1번 출구에 모였다. 강봉섭 대표께서 관람예약을 미리 하셔서 27,000원의 입장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구매하는 fast pass는 50,000원이므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입장은 지하1층에서 스카يش틀이라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전망층인 117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엘리베이터는 초당 10m의 속도로 전망층까지 이동하는데 거의 1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동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한 영상 이 상영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단지 귀가 좀 멍멍할 뿐이었다. 전망층부터 123층 라운지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었다. 전망층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서울과 성남 등을 볼 수 있었고 특히 118층에는 발 아래가 투명한 스카이트랙가 있어 직접 올라가서 아래를 보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20층에는 스카이트라스가 있어 건물밖으로 나가 시원한 외부 공기를 마시고 서울의 전망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강대표님께서 기왕 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23층의 라운지에서 음료를 한잔하자고 제안하셨다.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하여 밖을 전망할 수 있는 자리에 일렬로 앉아 메뉴를 받았는데 가격이 일반 커피점에 비하여 세배이상으로 비싼 것을 보고 메뉴만 구경하고 돌아 나와 전망층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담소를 나누었다.

뜻밖의 구경이었다. 엔지니어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높은 빌딩을 건축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이다. 이를 보완한다면 아마 많은 관람객들이 단순하게 빌딩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는데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멋진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지역대표로써 하나의 회기를 마치고 또 다른 하나의 회기를 시작한다. 서울스카에서 탁 트인 전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 3650지구의 미래도 로타리의 기본 이념과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하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